

“우리가 쓰레기란 말입니까” 경찰의 멸시·천대에 분노만 증폭

불법해고 1백46일 쉼을 맞은 한 노동자가 억울하고 분함을 참지 못해 글로써 하소연해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사회에 첫발을 딛고 뒷사람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했던 3년의 생활이었습니다. 남들이 구로 1공단의 크라운전자가 모범회사라고 부추길 때는 정말 그런가보다 하는 생각으로 자부심을 갖고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29일 퇴근시간 20분 전에 휴업통보를 받은 저희 조합원 3백여명은 길거리로 내몰렸고, 그 길고 혹독한 겨울을 지나 꽃피는 봄이 오기까지 우리의 안정된 일터를 보장 받으려 많은 관계기관을 찾아다니고 휴업의 부당함을 끊임없이 주장했지만 그들은 아랑곳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사회와 악덕 자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왜 노동부와 경찰은 있는 자의 편이 되어야 합니까? 정당한 주

장을 하는 노동자를 붙잡아 48시간을 채워서 내보내고, 노동자를 위하여 할 노동부가 자본가의 대변인으로 몸바쳐 일하는 세상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너무도 무참하게 우리를 짓밟았습니다.

그동안 회사출근투쟁도 해봤고 이곳저곳 찾아다니 보기도 했지만 정작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회장인 윤봉수가 얼굴 한번 내보이지 않자 계열사인 남성전기로 찾아갔다가 무자비하게 구타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4월2일에 겪은 일은 더한층 억울하고 분한 것이기에 이를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그날 저희 조합원 20명은 윤봉수의 교섭추구를 위해 남성전기 앞에서 “우리 일터 보장하고 즉각 교섭에 임하라”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남성전기 기사대 30~40명이 온갖 욕설

독자의 소리

과 함께 마구 구타했습니다. 글로 표현하기도 힘들 만큼의 잔인한 구타를 당했지만 현장에 있던 파출소장은 바라만 보고 있었고, 저희가 참다못해 때린 사람을 잡아달라고 애원하자 오히려 저희들에게 큰 소리를 치며 전경을 투입해 남부서로 연행을 한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있을까요? 왜 구타당한 사람이 연행돼야 합니까? 어느나라 법에 이런 법이 또 있나요? 경찰이 자주 쓰는 말에 “법대로 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 ‘법대로’란 말입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안정된 일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를 길거리로 내몰고 네델란드 필립스와 합작해 크라운전자 부지에 ‘필립스정밀코리아’를 설립하겠다는 이게 정당한 겁니까? 아무리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이런 뻔한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필립스정밀코리아가 설립된다면 우리 조합원을 고용승계하라고 요

구했지만 회장 윤봉수도 외면했고 필립스 사장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필립스 본사에 가서 사장과의 면담요청을 했는데 용산경찰서에서 출동해 조용히 하라고만 하기에 화가난 우리가 “경찰은 필요없으니 사장이 나 나와라”고 하자 가차없이 닭장차에 처넣어 버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레기란 말입니까? 왜 난지도나 행주산성·안양 등지에 버려져야 합니까. 한두차례도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내버지고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세상이 험해서 노동자를 이리도 무참히 짓밟는 예가 빈발하지만 저희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안정된 일터를 찾는 그날까지 힘껏 투쟁할 것입니다.

〈크라운전자노동조합·최옥자〉